

斗山研究所

그룹次元

技術開發적극支援



白雲和 所長

그룹내의 OB맥주를 비롯 두산식품·두산곡산·두산농산·두산개발 등 5개 관련사가 직접 투자하여 1981년 2월에 설립한 斗山연구소(소장 白雲知 박사)의 뿌리는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 기업부설연구소로서는 최초로 東洋맥주(주)양조기술연구실이 1953년에 설립되고 이어서 1974년 6월 東洋 맥주 연구소로 확대개편됨으로써 종합연구소로서의 체제를 갖춰 음식료품, 주류공업, 발효공업 및 농축산업 등 당시만 해도 상

왔다.

연구범위도 과거의 酒類 新製品, 飲食料品 개발 및 여기에 부수되는 애로 기술개발 위주의 연구분야에서 탈피하여 현재 斗山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영역에까지 연구업무 영역을 확장하였다. 아울러 최근 고도의 두뇌산업이며 첨단기술산업으로 일컫고 있는 遺傳工學과 精密化學 분야를 비롯하여 에너지 및 素材資源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研究所의 현황을 살펴보면, 研究開發費는 年間 10억여원을 투

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1956년 서독의 문헌공대에 연구원을 유학시켜 국내 최초의 釀造工學 博士學位 취득을 시작으로 매년 5~6명의 연구인력을 해외 연구기관 및 대학에 유학 또는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선진제국의 기술을 현장에서 습득케 하고 있으며, 국내의 과학자 또는 전문가를 수시로 초청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연구원의 연구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85년도부터는 年俸制의 賃金制度를 채택, 능력분위의 연구봉토를 조성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연구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研究組織에 있어서는 연구부문과 관리부문으로 대별하는데, 연구부문은 종래의 연구실 혹은 연구부 중심의 기능위주 조직에서 탈피하여 Matrix System을 도입, 각 연구과제별로 Project Team을 형성하고 Project Leader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연구원의 능력제고 및 창의성을 적극 계발할 수 있도록 하

1953年 国内 최초로 企業부설연구소인

東洋 맥주양조기술연구실로 출발

대적으로 국내기술이 낙후된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1981년에 斗山연구소로 본격 출범한것은 기술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그룹전체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개발지원의 필요성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이해 2월 東洋맥주(주) 영등포 공장내에 연건평 3백평의 건물을 신축, 현재의 연구소로 자리를 굳혀

자하고 있는데, 그중 연구시설면에 있어서도 과감한 투자에 힘입어 최신설비로 Spectrometer, Gas Chromatography, HPLC(高精度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원자 흡광 분석기, 아미노산 분석기는 물론 超高速 원심분리기, 전기 영동기 등의 精密機器와 Clean Bench(무균조작실), 분무 건조기, 농축기, 釀造 Pilot Plant 등의 연구장비를 확보하여 연구업무를 수

고 있다.

관리부서는 分析室, 行政管理室 그리고 기술·특허·산업 정보와 전산처리 및 연구Project를 관리하는 技術管理室 등으로 구성되어 연구효율 증대를 위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技術開發業務로는 先進技術의 소화·개발, 工程改善, 原資材의 自給化 및 그 가공 기술 개발로 원가절감은 물론 제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폐수 및 폐기물 처리 균주의 개발, 가축 개량 기술개발, 식물유전자의 재조합기술과 이종간 교배기술 개발로 식량증산을 위한 大麥育種研究등의 연구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정란 이식에 의한 家畜改良 技術開發을 성공, 6頭의 젓소를 탄생시켜 지금까지 수입해 오던 젓소대신 수정란을 수입함으로써

受精卵 이식에 의한 家畜改良 및 보리신품종개발

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應用技術開發能力 培養 및 尖端産業技術開發을 위한 연구와 신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부수적으로는 그룹계열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업무에 대한 提案制度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주요 연구과제 및 연구개발 실적을 분야별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遺傳工學 분야에 있어서는, 동식물의 유전인자 조작 기술을 응용한 應用技術開發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오염

의 화절약을 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맥 육종연구결과 보리의 형질을 개량시켜 국내 재배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 정부의 장려품종(사천 2호 및 6호, 두산 8호)으로 지정받아 완전 자급하고 있다.

이외의 농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原料의 국산화 및 수출증대를 위해 수입에만 의존하던 호프의 국내재배에 성공, 강원도 지역에서 尙農民재배기술 보급을 통해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에 이바지 함은 물

론 새우양식 및 보리새우 인공 부화에도 성공하여 77년부터는 동남아에 보리새우를 활어로 수출하고 있는 등의 農漁民所得 增大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정부로부터 食糧增産有功者 産業勳章을 받기도 하였다.

이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위스키 제조원료의 국산화 연구도 빠른 시일내에 완료시킬 예정이다.

앞으로도 더욱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하고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 産業研究所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斗山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국내외 최신 産業·技術情報을 신속히 수집, 분석 및 정리, 전산화하여 연구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술의 변화 추이를 적시에 파악하여 연구 효율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외국 先進技術의 模倣段階를 탈피하여 그 원리를 소화, 자체기술로 축적함과 아울러 한걸음 더 나아가 개량·응용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尖端技術을 비롯한 國策研究開發 분야에 참여하여 大學 및 專門研究機關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함은 물론 基礎研究의 응용기술을 꾀할 계획이다.

네째, 研究所의 생명은 實驗機資材보다 研究人力에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능력과 기술수준에 도달하도록 충분한 기초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연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세미나와 워크숍을 확대, 개최하고 해외유학 및 연수기회도 증가시켜 선진기술의 습득과 연구능력 향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斗山研究所 전경

